

# 글로벌 주식시장 변화와 전망

2023.11.24

## 유럽 증시, PMI 호조에 상승 마감

김석환 seokhwan.kim@miraeasset.com

### 유럽 증시 동향: PMI 개선

- 유럽 증시는 기업 활동 수준이 전월대비 소폭 개선되면서 심각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상승 마감. Stoxx 600 지수는 에너지 및 헬스케어 섹터의 강세에 힘입어 0.3% 상승하며 지난 9월 말 이후 최고치 기록. 노보노디스크(+1.01%)는 오젠평 · 위고비 등 체중 감량 및 당뇨병 치료제 생산을 늘리기 위해 약 23억 달러 규모의 투자안을 발표하며 강세.
- 그러나 독일의 새해 예산안 표결이 무기한 연기된 가운데 ‘부채억제(debt brake)’ 관련 이슈와 유유럽중앙은행(ECB) 통화정책회의 의사록에서 인플레이션을 목표치로 되돌리는 마지막 단계는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언급한 점은 상승폭을 제한. 또한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의 국채수익률은 상승하였고 유로화는 달러대비 소폭 강세를 보여. 한편, 유로존 주식시장의 변동성 지수는 지난 7월 이후 최저인 13.64를 기록. (스톡스 유럽 600 +0.27%, 영국 +0.19%, 프랑스 +0.24%, 독일 +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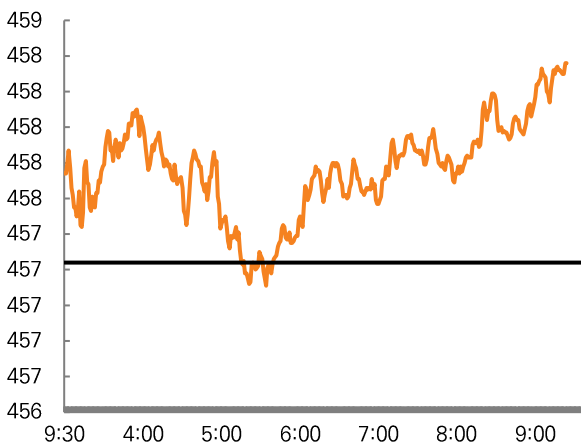
### 상품 및 외환 동향: 천연가스 강세

- 유럽의 천연가스 선물 가격은 5%대 상승 기록. 이번 주와 12월 초까지 유럽 전역에 매우 추운 날씨가 예상되면서, 에너지 수요가 증가할 것이란 기대 때문. 다만,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의 천연가스 재고가 충분하고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전력 공급이 원활한 만큼 지속적인 가격 상승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

### 한국 증시 전망: 이벤트 드리븐

-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299.36원으로 이를 반영한 달러/원 환율은 1원 상승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03% 하락. KOSPI는 약보험 출발할 것으로 예상. 전일 국내증시는 보험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며 종목별 차별화 모습 나타나. 유럽 증시 역시 강보합권의 모습을 보였지만, 국채수익률 상승은 상승폭을 제한시키기도 해. 최근 국고채 수익률의 등락을 살펴보면 주요국 중 가장 큰 폭의 하락(채권 가격 상승)을 보이며 ‘오버슈팅’ 논란이 있었던 만큼 되돌림 나타날 가능성 배제 못해. 또한 12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정기변경을 앞두고 전일 편출입 결과가 공개. 변경일은 12월 15일만큼 그 전까지 이벤트 드리븐 차원의 접근 유효.

스톡스 유럽 6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Global Indices

지수등락률	Close	D-1(%)	지수등락률	Close	D-1(%)
KOSPI	2,514.96	+0.13	상해종합	3,061.86	+0.60
KOSDAQ	815.98	+0.17	홍콩항셱	17,910.84	+0.99
DOW	35,273.03	+0.53	인도센섹스	66,017.81	-0.01
NASDAQ	14,265.86	+0.46	유로스톡스 50	4,361.32	+0.21
S&P 500	4,556.62	+0.41	영국	7,483.58	+0.19
캐나다	20,140.36	+0.13	독일	15,994.73	+0.23
일본	33,451.83	+0.29	프랑스	7,277.93	+0.24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변화 요인

## ① PMI ② ECB ③ 독일

유럽 증시는 기업 활동 수준이 전월대비 소폭 개선되면서 심각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상승 마감. Stoxx 600 지수는 에너지 및 헬스케어 섹터의 강세에 힘입어 0.3% 상승하며 지난 9월 말 이후 최고치 기록. 노보노디스크(+1.01%)는 오젠퍹·위고비 등 체중 감량 및 당뇨병 치료제 생산을 늘리기 위해 약 23억 달러 규모의 투자안을 발표하며 강세.

그러나 독일의 새해 예산안 표결이 무기한 연기된 가운데 ‘부채억제(debt brake)’ 관련 이슈와 유럽중앙은행(ECB) 통화정책회의 의사록에서 인플레이션을 목표치로 되돌리는 마지막 단계는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언급한 점은 상승폭을 제한. 또한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의 국제 수익률은 상승하였고 유로화는 달러대비 소폭 강세를 보여. 한편, 유로존 주식시장의 변동성 지수는 지난 7월 이후 최저인 13.64를 기록.

### # Eco리뷰: 11월 구매관리자지수(PMI) 잠정

유로존 20개국 기업의 활동을 측정하는 HCOM 유로존 종합 PMI는 47.1로 전월 46.5와 시장이 예상한 46.8 모두 상회.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전월과 시장 예상을 모두 상회. 다만, 경기 확장과 위축의 기준선인 50을 6개월 연속 하회하고 있는 점은 경기의 둔화 압력이 상당하는 사실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 또한, 국가별로 상반된 모습을 보였는데 역대 최대 경제국가인 독일은 소폭 개선된 반면, 프랑스는 제조활동이 42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는 등 둔화하는 모습 보여.

### # 이슈

#### 1) ECB 회의록 및 발언

ECB는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목표 수준으로 되돌리는 마지막 단계가 가장 어렵다고 밝히면서 지난 10번의 기준금리 인상의 여파가 아직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고 밝혀. 또한 역대 많은 국가들이 지난 9월보다 더 많은 경제적 불확실성을 경험하고 있다고 말해. 결국 앞으로 들어오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내심과 끈기를 갖고 대응할 것이란 점을 밝혀. 이는 ECB의 금리인상이 막바지에 다다랐고 추가 인상은 제한적일 것이란 점은 주식시장에는 우호적으로 작용.

그러나 분데스뱅크의 요아킴 나겔 총재는 금리가 정점에 도달해 있는 것은 맞지만, 너무 일찍 금리를 완화하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 벨기에 중앙은행 피에르 분시 총재는 5% 안팎의 높은 임금 인상률이 지속되는 한 금리 인하는 없다고 밝혀. 아일랜드 중앙은행 가브리엘 마크루프 총재 역시 금리가 사다리의 꼭대기에 거의 다다랐지만(금리 정점), 금리 인하를 논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일축. 또한 가계, 기업, 정부의 차입 비용이 점진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긴축정책의 영향이 아직 경제에 완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해.

#### 2) 독일 예산안 및 부채억제(debt brake)

지난 주 독일 최고법원은 약 600억 유로에 달하는 미사용 코로나19 팬데믹 예산을 기후자금으로 전용하려는 정부의 결정이 재정 규정을 어겼다고 판결. 이에 2024년 예산안을 처리하려던 정부 입장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새해 예산안 ‘재편’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 재편의 방향성은 ① 부채억제\*재정적자 GDP의 약 0.35%, 2009년 헌법으로 제정을 폐지할 지 아니면, ② 지출 조절을 통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할지의 여부로, 결정에 따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 상품 및 FX 시장 동향 “

## 천연가스 강세

**(유가)** 브렌트유는 OPEC+와 아프리카 산유국들 간의 2024년 생산량 수준에 대한 타협점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점에 장중 저점에서 낙폭을 축소하는 모습 보여. 다만, 지난 주 미국 원유 재고가 약 870만 배럴 증가해 시장이 예상한 116만 배럴을 크게 웃돌며 유가 하방 압력 키워.

**(천연가스)** 유럽의 천연가스 선물 가격은 5%대 상승 기록. 이번 주와 12월 초까지 유럽 전역에 매우 추운 날씨가 예상되면서, 에너지 수요가 증가할 것이란 기대 때문. 다만,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의 천연가스 재고가 충분하고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전력 공급이 원활한 만큼 지속적인 가격 상승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

**(금리)** 유럽 주요국의 국채 수익률은 전반적으로 상승. 이는 유로존 경기의 하방 위험이 완화된 점과 ECB가 당분간 높은 금리를 지속할 것이라고 시사하였기 때문. 여기에 역내 최대 경제국가인 독일의 예산안과 부채역제 이슈 역시 수익률 상승을 자극.

” 한국 주식시장 전망 “

## 이벤트 드리븐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299.36원으로 이를 반영한 달러/원 환율은 1원 상승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03% 하락. KOSPI는 약보합 출발할 것으로 예상

전일 국내증시는 보험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며 종목별 차별화 모습 나타나. 유럽 증시 역시 강보합권의 모습을 보였지만, 국채수익률 상승은 상승폭을 제한시키기도 해. 최근 국고채 수익률의 등락을 살펴보면 주요국 중 가장 큰 폭의 하락(채권 가격 상승)을 보이며 ‘오버슈팅’ 논란이 있었던 만큼 되돌림 나타날 가능성 배제 못해. 또한 12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정기변경을 앞두고 전일 편출입 결과가 공개. 변경일은 12월 15일만큼 그 전까지 이벤트 드리븐 차원의 접근 유효.

” 마켓 스냅샷 “

글로벌 FICC 동향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77.10	(휴장)	+4.46	Dollar Index	103.755	-0.16	-0.57
브렌트유	81.42	-0.66	+5.17	EUR/USD	1.0907	+0.17	+0.51
천연가스	2.90	(휴장)	-4.18	USD/JPY	149.55	+0.01	-0.78
금	2,013.20	(휴장)	+0.33	GBP/USD	1.2536	+0.34	+0.98
은	24.03	(휴장)	-0.71	USD/CHF	0.8840	+0.01	-0.53
알루미늄	2,224.50	+0.27	+0.41	AUD/USD	0.6560	+0.26	+1.39
전기동	8,409.50	+0.67	+2.31	USD/CAD	1.3695	+0.06	-0.44
아연	2,537.00	+1.68	-1.51	USD/RUB	88.5088	+0.02	-0.85
옥수수	487.75	(휴장)	-0.15	USD/BRL	4.9038	-0.09	+0.73
밀	584.50	(휴장)	-0.60	USD/CNH	7.1517	-0.15	-1.34
대두	1,356.50	(휴장)	-2.06	USD/KRW	1,297.50	-0.23	+0.05
커피	169.05	(휴장)	-3.48	USD/KRW NDF1M	1,299.36	+0.02	+0.67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4.404	(휴장)	-3.13	스페인	3.622	+6.90	+3.10
한국	3.710	-5.00	-8.00	포르투갈	3.265	+4.40	+2.70
일본	0.725	0.00	-6.60	그리스	3.858	+7.60	+2.10
독일	2.619	+5.90	+2.90	이탈리아	4.390	+7.40	+3.60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미래에셋증권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